

서부해당화 활짝 핀 강진으로 오세요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봄꽃축제

“20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가 활짝 핀 강진으로 오세요.”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연다.

대한민국 최대 서부해당화 군락지인 남미륵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봄나들이 축제다.

강진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봄철 수많은 남미륵사 방문 관광객을 강진읍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관광 자원 홍보에 나선다.

이번 축제는 봄축제 특성상 중·장년과 커플이 주 타겟이다. 킬러콘텐츠인 꽃에 집중,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체류시간을 대폭 늘린다.

개장식은 6일 오전 10시에 남미륵사 주차장과 탐방로 일원에서 열리며 폐막공연은 14일 오후 4시 지역 가수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관광객들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강진 반값 가족여행'이다. 축제 기간 중 테마여행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 낸다.

테마가 있는 강진 반값여행으로 '강진 그린투어'는 남미륵사 봄꽃, 강진을 세계모란공원, 가우도를, '강진 인물투어'는 정약용의 다산초당, 김영량의 시문학박물관, 하평의 병영 한골목 들다

길, '강진 에코투어'는 백련사 동백숲, 주작산 자연휴양림, 가우도를, 'K-컬처 투어'는 청자박물관 상설 물레체험, 한국민화박물관, 무위사, 월남사지를 돌아본다.

이번 축제가 끝나고 한 달 뒤 1000만 그루의 철쭉이 다시 한 번 남미륵사 일원을 뒤덮는다. 여기에 도암면 만덕산 백련사 동백과 강진을 세계모란공원 모란도 맞닿 자태를 뽐내 강진의 봄꽃 향연을 이어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꽃을 소재로 한 강진의 축제는 봄을 거쳐, 여름, 가을로 이어질 것”이라며 “축제는 관광 관련 3차산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을 통한 지역민 소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연다. <강진군 제공>

청명·한식·충선기간
장성군, 산불 예방 총력

장성군이 청명과 한식, 충선기간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청명과 한식은 차례를 지내려는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다. 포근한 날씨로 등산객 수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10일 충선에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산을 찾기도 한다. 인파가 늘어나면 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져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장성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과 함께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60여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예찰 활동을 펼친다.

산림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도 일일이 파악하고 산불 대비계획을 확인한다.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 상시 점검도 실시한다.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굳건하게 다진다. 장성군과 소방안전센터, 군부대,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발생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농촌 적정 인건비 11만원 제시

인건비 적정 조정 일당 마찰 해결
노동 강도 따라 자율 조정 가능토록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일당 책정 시비거리 해소를 위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제시한 적정 인건비는 최근 열린 '2024년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 강도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나주시의회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외국인 농업인력 적정 임금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다가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주에선 한 치 앞을 못 본 이러한 홍보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줄면서 일당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아 되레 농가 고통

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 관계자, 유료 직업소개업소, 노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시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적정 임금 책정 과정에서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안상현 부시장(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농촌인력 인건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는 모두가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올봄 농번기에 농촌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확보함으로써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담양군은 지난 2일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과 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담양 '대숲맑은쌀' 서울 민간어린이집 납품

담양군의 '대숲맑은쌀'이 서울 민간어린이집에 납품된다.

담양군은 지난 2일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과 친환경 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친환경 담양쌀과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전양숙 서울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향후

930개 회원사가 담양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담양 대숲맑은 친환경 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나주시, 마음 아픈 청년 '우울 검진' 지원 확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나주시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나섰다.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청년들의 사회성 고립 예방 및 불안우울감 극복을 위해 신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위대한 청춘(靑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내 마음 살피기-마음건강체크(노파·스트레스) ▲마음 키우기-웃음치료 및 자살 예방 교육 ▲마음 피우기-플라워 테라피 및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며,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19세~34세)은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하다.

이에 앞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월부터 관내 대학교 2개소(동신대, 가톨릭대)에서 마음건강 검사, 중독(음주, 도박, 마약) 예방 캠페인 및 상담 부스를 운영 중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



나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위대한 청춘(靑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게는 치료 연계와 상담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산부, 직장인, 노인, 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

매 주말·휴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버스킹'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에서 주말마다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은 6일부터 매 주말(금·일)과 공휴일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버스킹'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공연은 매주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7시 10분부터 45분간 진행된다.

음악분수는 오후 8시부터 볼 수 있다. 폭염과 폭우 때는 무대가 열리지 않는다.

공연 첫날인 6일 오후 7시 20분에는 전자현악 단체의 이색적인 선율 무대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에는 통기타 어쿠스틱 밴드, 다음 날 오후 7시 20분에는 색소폰 연주가 주말 밤을 선율로 채운다.

화순군은 '2024년 화순 버스킹 공모사업'을 추진해 대상 음악가를 심사하고 있다. 선정 음악가는 이달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분이 버스킹에 지원했다”며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버스킹을 선보이기 위해 난이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엄선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의 시인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가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가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가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가사